진짜 처음 교회

(눅9:1-9)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3.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8.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 처음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터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꿈으로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근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생기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 완벽한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굳이 이름을 묻는다면 '갈릴리 처음교회'에요.
지금 갈릴리에서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갈릴리 전도 중에 일어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 일은 교회의 가장 완벽한 원형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정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운동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운동 상태가 교회라는 거예요,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12제자가 보냄을 받고 나가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7절부터 9절까지).
대표적인 예로 헤롯왕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고 있고,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로 모이면 그 모임 안에서 무엇을 하며,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주 분명하게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가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클레오'라고 하는 '부

른다'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클레시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기 이전까지 뭐 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세가 나타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갖고 계셨던 그 권세를 12제자들에게 그대로 넘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발전해서 말을 하자면, 12제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러시는데, 가령 12제자가 6군데로 보냄을 받았다, 6방향을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같이 가 계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임금님은 한양 궁궐 안에 계시지만, 암행어사가 충청도 청주에 나타났다 그러면,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서 그 마패를 들고 있는 암행어사가 나타난 그 곳에 같이 와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의 판단이 곧 어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십니다.
직장생활 하고 있고, 가정생활 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거의 똑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을, 그런 삶의 모습들로부터 불러 내셨습니다.
불러 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어제 얘기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과 동시에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죽었다 살아난 딸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보던, 정말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결속을 보이던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빠는 아빠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 딸은 딸대로 이제 12살이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는 딸이 이제는 아빠와 엄마와 결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결속해서 한 팀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각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명이 흩어졌지만, 사실은 12팀이 흩어진 것입니다.
12팀이 흩어져서, 움직이며 활동하고 사역할 때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분명히 열둘을 보냈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이 대목도 참 재미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도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오늘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고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있는 7절과 9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헤롯, 헤롯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내가 요한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런 일이 들린다는 것은 12제자가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대역사를 이루고 있어서 온 유대사회가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제자가 흩어져서 하는 일을 헤롯이 뭐라고 보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이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12명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과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 모여서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팀 되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가정과 사회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면, 부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이지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겁니다.
12사람이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유대 땅 각 곳에 흩어져서 활동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12군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에 보면은, 탐관오리들의 창고가 털리는 일이 반복되자 나라에서 홍길동을 잡으려고 합니다.
전국 팔도에 영을 내리고 잡으려고 할 때 이때 홍길동이 풀로 사람을 만듭니다, 초인이라 그러죠.
초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혼백을 불어 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 대고 바람을 불어서, 생기가 돌게 되어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혼백을 불어 넣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공상소설이니까. 그래서 홍길동이 팔도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흩어지면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고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12명의 그리스도가 12군데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인이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모여서 하는 일이 100명 각자가 예수님과 한 팀 됨을 확인하고, 이 한 팀 됨에 구성이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세우고, 다시 강화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면 100군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며, 예수님 한 분이 100군데서 움직이는 걸 확인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헤롯왕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했는데 그 다음 10절에 '사도들이 돌

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한다'

12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이, 헤롯과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전 세계에 가톨릭 인구가 12억이고 개신교가 7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19억 개 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이 12억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단이 있고 남자 사제단이 있고 여자 수녀단이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에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당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선교회가 있고… 이거 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조직이 교회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목사님으로부터 사찰집사님까지 새 신자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고, 목사님이 하는 일은 당회를 움직이고 제직회에 제직회장이 되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20년 30년 된 신자이든 새신자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한 팀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 붙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을 때,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먹고 살 궁리를 안 하고, 집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흩어졌습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을 때, 집사들이 이제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구제와 봉사

로 정해진 그 순간에, 일곱 집사님이 봉사하고 구제할 기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이 예루살렘교회를 핍박으로 흩어버리시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성은 반(反)조직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교회를 핍박으로 흩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흩으신 것과 집사를 세운 것은, 아주 반대적 본성이 부딪친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고 이제 그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런 조직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셔서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100명 교회는 100팀이 만들어지고, 100명이 흩어지면 100군데서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예수님과의 팀웍이 흐트러질 때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단 둘의 팀웍을 깨서 그 예수님과의 사이에 들어와 있는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노후문제, 내 건강문제 모~든 예수님과 내 마음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몰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면서, 다시 한 번 예수님과의 팀을 확인하고 구성하고 공고히 하고 강화해서 세상으로 보내져, 세상에서 예수님과 팀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팀이 돼서 아빠노릇하고, 예수님과 팀이 돼서 아들노릇하고, 예수님과 팀이 돼서 엄마 되고,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직장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심지어는 요즘의 교회까지도 하이어라키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사원이 있고 그 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부장 위에 뭐 상무가 있고 그 위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평사원들은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최고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다면, 이 교회 안에서 특징은 이상하게, 모~든 평사원까지 다, 상무고 전무고 과장이고 이런 사람들만 회장님 얼굴을 가끔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평사원에 해당되는 평신도 모두가 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

든 구분 없이 모두가 회장님이신 예수님과 한 팀이 된다는 게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피라미드식으로 하이어라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교회는 그런 조직으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회장님 격이신 예수님과 한 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 신자가 예수님과 한 팀인데,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지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팀이 되도록 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한 팀이 되도록만.
근데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 소모되고 맙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활동하면서 나타나야 될 그 모든 에너지가, 교회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교회 안에서 행사를 유지하고, 이 모든 일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게 잘못 된 겁니다, 기가 막히게.

목사님들의 목회는 예수님과 모든 개 교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팀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고, 허물어지면 세워주는 것이고, 약한 건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조직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예수님과 한 팀이 된 교인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노릇도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해야 돼요.
아내노릇도 프로그램이고, 아빠노릇 엄마노릇, 직장인 노릇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조직이 없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의 본성은 조직과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은 예수님과 한 팀이 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가서 움직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19억의 예수님을 19억의 장소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봐야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19억은 고사하고, 내 교인이 50명이면, 이제 그 50명이 흩어지면 50군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팀이 되게끔 불러 모으시고, 한 팀이 된 자를 내 보내셔서 그에게서 움직이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런 교회에 교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갈릴리 처음교회의 모습,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운동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셔서, 정말 교인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